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의 행동문제*

The Relation of 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to Problem Behavior

한 미 현**

Han, Mi Hyun

유 안 진***

Yoo, An Ji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 of 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s to problem behavior during childhood,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he main and stress-buffering effects of perceived social supports. Such demographic data as parents' educational level, father's job, mother's employment, family income, and child's sex and age were also included in the study. Statistical techniques were ANOVA,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Major findings were that behavior problems of children increased with children's stress and decreased by perceived social supports. Perceived social supports moderated the relation between children's stress and problem behavior. Children's 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s differ by educational level of parents, father's job, and family income. Behavior problems of children were differed by family income, father's educational level and job. Children's stress and behavior problems differed by sex and age in some sub-domains, but perceived social supports did not differ by children's sex and age. Perceived social support from friends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affecting children's problem behavior. Therefore, friends may be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source of social support that is available for adjustment and for coping with stress during childhood.

* 이 연구는 1996년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입니다.

** 기독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조교수

***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Selye(1956)가 “생활 스트레스(The Stress of Life)”를 발표한 이후로 그 동안 여러 학자들이 스트레스를 주제로 많은 연구를 하였다. 그리고 이들 연구들은 누적된 스트레스와 다양한 형태의 행동문제간에 관련이 있음을 일관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와 개인의 적응간의 관계는 이에 관한 연구들이 성숙되고 정교화됨에 따라 몇가지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어, 아직까지도 많은 관심과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기존 스트레스 연구의 두드러진 특징은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는 전이적인 사건 혹은 주요한 생활사건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활사건과 개인의 적응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결과를 보면, 두 변수간 상관계수가 .12로 매우 낮으며, 생활사건은 개인의 적응수준에 대해 적은 비율의 변량만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DeLongis, Coyne, Dakof, Folkman, & Lazarus, 1982; Lazarus & Folkman, 1984; Tausing, 1982). 이는 생활사건이 적응이나 행동문제를 예언하는데 실제적인 의미가 별로 없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를 측정하는데 생활사건이 아닌 다른 대안적 요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고, 일상적 스트레스를 측정하여 스트레스의 효과를 파악하려는 연구가 시도되었다. 그 결과 일상생활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히 경험하는 사소한 문제거리들은 스트레스 유발의 주요인이 되며(DuBois, Felner, Brand, Adan, & Evans, 1992), 일상적 스트레스는 개인의 신체적 증후(Zarski, 1984)와 정서적 장애(Holahan, Holahan, & Belk, 1984)의 발생과도 유의한 상

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스트레스의 영향을 살피는데 단순히 생활사건의 발생여부보다 일상적 스트레스의 경험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일상적 스트레스를 스트레스 지수로 삼아도 스트레스와 개인의 적응 혹은 행동문제간에 그다지 높은 상관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Lazarus & Folkman, 1984). 그래서 스트레스 경험과 적응간의 관계를 중재하리라고 여겨지는 개인적, 상황적 변수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이 때 스트레스 대처자원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었다. 스트레스 대처자원에는 개인이 속한 관계망내에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와 같은 사회환경측면과, 개인의 문제해결기술이나 대인기술, 긍정적인 자기평가 등의 개인적 측면들이 포함된다(Compas, 1987).

그런데 예방심리학이 대두되면서 사회적 지지는 다른 어떤 변수들보다도 스트레스와 행동문제간의 관계를 중재하는 유용한 변수로 주목받게 되었다(Kaplan, Robbins, & Martin, 1983). 이는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평가와 대처능력 등에 영향미쳐 스트레스의 경험수준을 감소시키고, 결국 행동문제의 유발에 미치는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영향의 잠재적인 중재변수로 상당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미래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Dubow & Tisak, 1989). 따라서 개인의 친밀한 사회관계망내에서 얻을 수 있는 대처자원인 사회적 지지가 실제로 아동의 스트레스 및 행동문제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나 사회적 지지,

행동문제 모두는 부모의 교육수준과 부의 직업, 모의 취업, 가계소득, 그리고 아동의 성별과 연령 등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관한 연구가 그다지 많지 않아 축적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국내에서는 더욱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 분야의 연구도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이상의 논의로서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스트레스와 행동문제간의 관계, 그리고 두 변수간의 관계에서 중재변수로 주목받는 사회적 지지 지각의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간의 관련성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아동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지각 및 행동문제가 부모의 교육수준과 부의 직업, 모의 취업, 가계소득, 그리고 아동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는 지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또한 행동문제와 관련된 제 변수들의 상대적인 예언력을 비교해 봄으로써 행동문제의 유발원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II. 연구문제 및 변수의 정의

이상의 연구목적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연구문제를 구성하는 변수들에 대해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아동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지각, 행동문제는 부의 교육수준, 모의 교육수준, 부의 직업, 모의 취업, 가계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지각, 행동문제는 아동의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부의 교육수준, 모의 교육수준, 부의 직업, 모의 취업, 가계소득, 아동의 성별, 아동의 연령, 아동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지각의 상대적인 예언력은 어떠한가?

2. 변수의 정의

1) 아동의 스트레스는 '아동에게 내적 또는 외적 요구가 생겼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는 지각으로 인해 유발되는 심리적, 행동적, 생리적 반응'이라고 정의한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한미현과 유안진의 연구(1995a)를 참조하여 아동의 스트레스를 부모영역, 가정환경영역, 친구영역, 학업영역, 교사 및 학교영역, 주변환경영역 등의 6가지 하위유형으로 구분한다.

2) 아동의 사회적 지지 지각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타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랑이나 인정, 정보, 물질적 원조 등의 긍정적 자원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평가'로 정의한다. 한편 아동이 맺고 있는 주된 사회적 관계는 가족과 친구, 교사이므로 사회적 지지를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로 구분한다.

3) 아동의 행동문제는 '일상생활에서 아동이 보이는 사회적 기대나 규범에서 벗어난 부적응적

행동'으로 정의한다. 행동문제의 하위유형은 과잉 행동, 불안행동, 위축행동, 공격행동, 미성숙행동 등의 5가지로 구분한다. 이는 Achenbach(1991)가 분류한 9가지의 행동문제유형 중, 이상의 5가지 유형이 우리나라 아동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행동문제(한미현, 1993)이기 때문이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아동이 보이는 행동문제의 양상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여 4-11세, 12-18세로 구분된다(Achenbach, 1991).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평균적으로 10세와 12세에 해당하는 국민학교 4학년과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의 지각, 행동문제의 평가에 대한 아동자신의 자기보고식 측정은 공통된 평가과정의 함수일 수 있으므로(Dohrenwend, Dohrenwend, Dodson, & Shrout, 1984), 아동의 부모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래서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지각에 대해서는 아동자신이 자기보고식 조사도구를 완성하고, 아동의 행동문제는 보다 객관적인 측정을 위해 부모가 아동의 행동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대상의 표집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편중되지 않도록 서울시 토지지가분류표(한국감정원)를 참조하여 6개구에서 1개 학교씩을 유의표집하였다. 그런 다음 각 학교에서 4학년과 6학년 1개 반씩을 선정하여 총 12개반의 남녀아동과 그들의 부모 540쌍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부실기재된 경우와 편부모가족 등은 제외시키고 최종적으로 493명의 아동과 그들 부모의 자료를 분석자료로 삼았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변 수	구 분	빈도(%)
아동의 성별	남	249(50.5)
	여	244(49.5)
아동의 연령	4학년(10세)	250(50.7)
	6학년(12세)	243(49.3)
아버지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57(11.6)
	고 졸	235(47.7)
	대 졸	166(33.7)
	대학원이상	34(6.9)
	무 응 답	1(0.2)
어머니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115(23.3)
	고 졸	277(56.2)
	대 졸	94(19.1)
	대학원이상	7(1.4)
아버지의 직업	무 직	3(0.6)
	생 산 직	7(1.4)
	반숙련 기능직	18(3.7)
	숙련 기능직	50(10.1)
	판매·서비스직	156(31.6)
	사 무 직	118(23.9)
	관 리 직	89(18.1)
	전 문 직	51(10.3)
	무 응 답	1(0.2)
	어머니의 직업	무 직
생 산 직		13(2.6)
반숙련 기능직		16(3.2)
숙련 기능직		2(0.4)
판매·서비스직		62(12.6)
사 무 직		28(5.7)
관 리 직		9(1.8)
전 문 직	2(0.4)	
월평균 가계소득	50만원 미만	6(1.2)
	50-99만원	76(15.4)
	100-149만원	93(18.9)
	150-199만원	118(23.9)
	200-249만원	108(21.9)
	250-299만원	54(11.0)
	300만원이상	38(7.7)
	계	493(100.0)

2. 조사도구

1) 아동의 스트레스 척도는, 우리나라 아동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한미현과 유안진(1995a)이 개발한 ‘한국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영역, 가정환경영역, 친구영역, 학업영역, 교사 및 학교영역, 주변환경영역 등 6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되며, 총 4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다(1점)’에서 ‘많이 받는다(4점)’의 4점 척도로 하였다.

2) 사회적 지지 지각 척도는, 이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척도를 제작하기 위해 먼저 Dubow와 Ulman(1989)의 SSAS(the 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와 SAB(Scale of Available Behavior), Cohen과 Hoberman(1983)의 ISEL(the Interpersonal Support Evaluation List), Lemper 등(1989)의 PQ(Parenting Questionnaire)와 국내의 연구로 김명숙(1995), 성영혜(1993), 한미현(1993)의 척도들을 참고하여 1차 예비문항을 작성하였다. 그런 다음 아동학 전공자 5명과 일선교사 10명으로부터 문항의 적합성 검토와 조언을 받아 2차 예비문항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2차 예비문항의 변별도와 타당도, 내적 합치도 등을 알아보기 위해 47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문항분석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24개 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작된 사회적 지지 지각 척도는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등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분되며 하위영역별로 8개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 및 점수부여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하였다.

3) 행동문제 척도는, Achenbach(1991)가 개발한 아동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의 타당도를 검증한 한미현과 유안진의 연구(1995b)를 참고하였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과잉행동, 불안행동, 위축행동, 공격행동, 미성숙행동 등의 5개 영역만을 다루므로 이들 영역에 해당되는 문항만을 선정하였다. 또한 보다 설명력 높은 문항들로 선정하고자 하위영역별로 단계별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각 영역별로 설명력이 높은 순으로 8개 문항씩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 및 점수부여방식은 ‘아니다(1점)’, ‘약간 그런 편이다(2점)’, ‘매우 그렇다(3점)’로 하였다.

3.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처리를 위해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원변량분석과 scheffé 검증, t 검증, 이원변량분석, 중회귀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이외에 척도의 구성과 타당도 검증을 위해 χ^2 , Cramer's V계수, 요인분석, 단계별 중회귀분석, Cronbach's α 계수 등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부모의 교육수준, 부의 직업, 모의 취업, 가계소득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지각 및 행동문제 차이

먼저 아동의 스트레스가 부모의 교육수준과 부의 직업, 모의 취업, 가계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표2>와 같다. <표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적인 스트레스는 아버지가 대졸이상이고 어머니가 고졸이

〈표 2〉 부모의 교육수준, 부의 직업, 모의 취업 및 가계소득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의 변량분석결과

구분	집단	빈도 (%)	부모영역		가정환경영역		친구영역		학업영역		교사학교영역		주변환경영역		진체
			M/Scheffé	M/Scheffé	M/Scheffé	M/Scheffé	M/Scheffé	M/Scheffé	M/Scheffé	M/Scheffé	M/Scheffé	M/Scheffé	M/Scheffé		
부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57 (11.6)	21.96	16.18 a	18.54	21.35	17.39 a	16.04 a	111.46 a						
	고졸	235 (47.8)	21.29	15.10 a	17.83	20.74	16.10 ab	14.69 ab	105.74 ab						
	대졸이상	200 (40.6)	20.27	13.79 b	17.39	19.46	15.53 b	14.05 b	101.64 b						
F 값			1.80	8.14***	.69	2.02	3.99*	5.31**	5.03**						
모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115 (23.3)	21.77	15.85 a	18.58	21.17	16.83 a	15.73 a	110.38 a						
	고졸	277 (56.2)	20.96	14.49 b	17.59	20.34	15.82 b	14.32 b	103.51 b						
	대졸이상	101 (20.5)	20.69	13.93 b	17.35	20.09	15.59 b	13.99 b	101.40 b						
F 값			2.00	5.55**	2.36	1.89	3.31*	6.13**	5.54**						
부의 직업	생산기능직	78 (15.9)	21.80	15.96 a	17.91 ab	21.16	16.65 a	15.35	109.00 a						
	판매서비스직	156 (31.7)	21.34	15.38 ab	18.79 a	20.83	16.70 a	14.85	107.71 a						
	사무관리직	207 (42.1)	21.15	14.08 bc	17.53 ab	20.34	15.54 ab	14.27	102.86 ab						
전 문 직	51 (10.4)	19.75	13.14 c	15.75 b	19.50	15.04 b	13.87	96.69 b							
F 값			2.16	6.69***	4.12**	1.43	3.49*	2.30	4.87**						
모의 취업	비취업	361 (73.2)	21.29	14.46	17.93	20.78 a	15.94	14.62	105.04						
	취업	132 (26.8)	20.67	15.32	17.42	19.66 b	16.18	14.45	103.70						
t 값			1.26	-1.86	.90	2.21*	-.52	.43	.60						
가계 소득	99만원 이하	82 (16.6)	21.76	16.18 a	17.83	20.74	17.03 a	15.15	109.63 a						
	100-249만원	319 (64.7)	21.23	14.86 a	17.99	20.70	16.19 a	14.66	105.58 a						
	250만원 이상	92 (18.7)	20.34	13.37 b	16.87	19.61	14.87 b	13.95	99.00 b						
F 값			1.97	6.43**	1.54	1.73	4.40*	2.11	4.49*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abc : 같은 문자끼리는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 없음.

상일 때, 그리고 아버지가 전문직종에 종사하고, 가계소득이 높을 때 아동의 스트레스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하위영역 별로 보면, 부모영역의 스트레스는 어떠한 변수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가정환경 영역과 교사학교영역에서의 스트레스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영역의 스트레스는 부의 직업에 따라서만 차이를 보

여, 부의 직업이 판매서비스직일 때 가장 높았다. 한편 학업영역의 스트레스는 모의 취업유무에 따라서만 차이가 있어, 비취업모의 아동이 취업모의 아동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동의 사회적 지지 지각이 부모의 교육수준, 부의 직업, 모의 취업, 가계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부모의 교육수준, 부의 직업, 모의 취업, 가계소득에 따른 사회적 지지 지각의 변량분석 결과

구 분	집 단	빈도(%)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	전 체
			M/Scheffé	M/Scheffé	M/Scheffé	M/Scheffé
부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57(11.6)	25.84 a	28.04 a	25.12 a	79.00 a
	고 졸	235(47.8)	26.88 a	31.44 b	25.26 a	83.58 a
	대졸이상	200(40.6)	29.09 b	32.85 b	27.08 b	89.02 b
	F 값		6.85**	9.30***	3.77*	9.53***
모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115(23.3)	26.44 a	30.10a	25.13	81.83 a
	고 졸	277(56.2)	27.68 ab	31.88 ab	25.85	85.36 ab
	대졸이상	101(20.5)	28.92 b	32.70 b	27.28	88.90 b
	F 값		3.03*	3.49*	2.16	4.40*
부의 직업	생산기능직	78(15.9)	25.33 a	29.43 a	24.43	79.37 a
	판매서비스직	156(31.7)	27.13 ab	31.51 ab	25.87	84.66 ab
	사무관리직	207(42.1)	28.32 b	31.81 ab	26.38	86.94 b
	전 문 직	51(10.4)	30.10 b	32.30 b	27.10	89.24 b
	F 값		5.34***	2.63*	1.61	4.57**
모의 취업	비 취 업	361(73.2)	27.88	31.83	26.20	85.91
	취 업	132(26.8)	27.00	31.09	25.41	83.50
	t 값		1.16	.96	1.05	1.35
가계소득	99만원이하	82(16.6)	25.70 a	29.72 a	23.98	80.73 a
	100-249만원	319(64.7)	27.47 ab	31.38 ab	25.93	84.77 ab
	250만원이상	92(18.7)	29.17 b	33.14 b	26.86	89.17 b
	F 값		3.46*	3.45*	1.21	3.79*

주) 1. *p<.05 **p<.01 ***p<.001

2. abc: 같은 문자끼리는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

〈표 4〉 부모의 교육수준, 부의 직업, 모의 취업 및 가계소득에 따른 행동문제의 변량분석결과

구분	집단	빈도 (%)	과잉행동		불안행동		위축행동		공격행동		미성숙행동		전체	
			M/Scheffé	M/Scheffé	M/Scheffé	M/Scheffé	M/Scheffé	M/Scheffé	M/Scheffé	M/Scheffé	M/Scheffé	M/Scheffé	M/Scheffé	
부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57 (11.6)	17.53 a	16.54	14.37	14.54 a	16.82 a	79.32 a						
	고졸	235 (47.8)	16.76 ab	16.18	13.75	13.68 ab	15.90 ab	76.37 ab						
	대졸이상	200 (40.6)	16.31 b	15.66	13.71	13.39 b	15.35 b	74.36 b						
	F 값		3.71*	1.75	1.90	4.67**	3.70*	5.83**						
모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115 (23.3)	16.95	16.27	14.18	14.02	15.98	77.38						
	고졸	277 (56.2)	16.66	16.04	13.06	13.63	15.80	75.73						
	대졸이상	101 (20.5)	16.26	15.81	13.89	13.35	15.18	74.49						
	F 값		1.11	.47	1.71	2.49	2.41	2.46						
부의 직업	생산기능직	78 (15.9)	17.63 a	16.66	14.62 a	14.77 a	16.92 a	80.62 a						
	판매서비스직	156 (31.7)	16.80 ab	16.41	13.94 ab	13.61 b	16.04 ab	76.85 ab						
	사무관리직	207 (42.1)	16.44 b	15.66	13.46 b	13.39 b	15.32 bc	74.18 b						
전문직	51 (10.4)	15.73 b	15.77	13.25 b	13.25 b	14.61 c	73.13 b							
	F 값		4.58**	2.44	4.74**	6.44***	8.47***	9.88***						
모의 취업	비취업	361 (73.2)	16.75	16.04	13.73	13.78	15.70	76.01						
	취업	132 (26.8)	16.44	16.11	13.87	13.33	15.80	75.56						
	t 값		.98	-23	-52	1.75	-32	.43						
가계 소득	99만원 이하	82 (16.6)	17.63 a	16.04	14.35 a	14.73 a	17.03 a	79.40 a						
	100-249만원	319 (64.7)	16.69 ab	16.15	13.89 a	13.63 b	15.83 a	76.27 a						
	250만원 이상	92 (18.7)	16.07 b	15.67	13.03 b	13.32 b	14.77 b	72.86 b						
	F 값		3.16*	.96	5.23**	4.47**	8.66***	6.83**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abc : 같은 문자끼리는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 없음.

〈표 3〉을 보면, 전체적인 사회적 지지와 친구 지지, 가족지지는 부모의 교육수준, 부의 직업, 가계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고 모의 취업유무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고 부의 직업이 사무관리직 이상의 상위직종일 때, 그리고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아동의 사회적 지지 지각 점수가 높다. 그러나 교사지지는 부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여, 아버지가 대졸이상일 때 아동은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한다.

끝으로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를 보는 바와같이 전체적인 행동문제는 아버지가 대졸이상이고 사무관리

직 이상의 상위직종에 종사하며, 가계소득이 많을 때 아동의 행동문제가 낮았다. 반면 어머니의 교육수준이나 취업과 같은 어머니와 관련된 변수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동문제의 하위유형별로 보면, 과잉행동과 공격행동, 미성숙행동은 전체 행동문제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위축행동은 아버지의 직업과 가계소득에 따라서만 차이를 보이고, 불안행동은 어떤 변수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아동의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지각 및 행동문제 차이

〈표 5〉 아동의 성별 및 연령별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지각, 행동문제의 평균

변 수	하위영역	성 별		연 령	
		남 아	여 아	남 아	여 아
스트레스	부모영역	21.08	21.17	20.95	21.30
	가정환경영역	14.44	14.95	15.40	13.96
	친구영역	17.19	18.41	18.72	16.84
	학업영역	20.12	20.85	20.66	20.30
	교사학교영역	15.76	16.27	16.69	15.31
	주변환경영역	14.94	14.22	15.38	13.75
	전 체	103.52	105.86	107.80	101.47
사회적지지 지각	친구지지	27.43	27.86	27.36	27.93
	가족지지	31.83	31.43	32.14	31.12
	교사지지	25.90	26.08	26.30	25.67
	전 체	85.16	85.37	85.80	84.72
행동문제	과잉행동	16.42	16.92	16.96	16.37
	불안행동	15.51	16.61	16.07	16.04
	위축행동	13.40	14.15	13.65	13.90
	공격행동	13.65	13.67	13.66	13.66
	미성숙행동	15.55	15.92	15.94	15.51
	전 체	74.53	77.27	76.29	75.48

먼저 아동의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아동의 스트레스가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부 하위영역에서 성별과 연령의 주효과가 의미있게 나타났다. 즉 <표 5>와 <표 6>을 보면 친구영역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반면, 주변환경영역에서는 여아보다 남아의 스트레스 경험정도가 더 높다. 또한 10세아동은 12세아동보다 부모영역과 학업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네 영역 모두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한편 아동의 성별 및 연령이 아동의 사회적 지지 지각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모든 영역에서 아동의 성별이나 연령의 의미있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행동문제에 미치는 아동의 성별 및 연령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표 5>와 <표 7>을 보는 바와 같이 여아는 남아보다 불안행동과 위축행동을 더 많이 보이고, 10세아동은 12세아동보다 더 많은 과잉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아동의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스트레스의 이원변량분석표

하위영역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값
부모영역	성별	.93	1	.93	.04
	연령	14.50	1	14.50	.63
	성별×연령	26.51	1	26.51	1.16
	오차	11192.65	489	22.89	
가정환경영역	성별	35.05	1	35.05	1.74
	연령	257.08	1	257.08	12.78***
	성별×연령	18.89	1	18.89	.94
	오차	9838.73	489	20.12	
친구영역	성별	190.62	1	190.62	6.21*
	연령	445.68	1	445.68	14.52***
	성별×연령	1.60	1	1.60	.05
	오차	15010.48	489	30.70	
학업영역	성별	65.47	1	65.47	2.60
	연령	16.12	1	16.12	.64
	성별×연령	61.63	1	61.63	2.45
	오차	12310.78	489	25.18	
교사학교영역	성별	34.72	1	34.72	1.79
	연령	236.95	1	236.95	12.24***
	성별×연령	5.57	1	5.57	.29
	오차	9467.22	489	19.36	
주변환경영역	성별	59.64	1	59.64	3.63*
	연령	323.78	1	323.78	19.68***
	성별×연령	20.93	1	20.93	1.27
	오차	8043.75	489	16.45	
전체	성별	726.45	1	726.45	1.55
	연령	5004.00	1	5004.00	10.67***
	성별×연령	652.52	1	652.52	1.39
	오차	229312.88	489	468.95	

*p<.05 **p<.01 ***p<.001

〈표 7〉 아동의 성별 및 연령에 따른 행동문제의 이원변량분석표

하위영역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값
과잉행동	성별	31.40	1	31.40	3.27
	연령	44.48	1	44.48	4.63*
	성별×연령	.01	1	.01	.01
	오차	4702.59	489	9.62	
불안행동	성별	150.55	1	150.55	14.03***
	연령	.27	1	.27	.03
	성별×연령	3.36	1	3.36	.31
	오차	5248.39	489	10.73	
위축행동	성별	69.44	1	69.44	10.52***
	연령	7.01	1	7.01	1.06
	성별×연령	2.05	1	2.05	.31
	오차	3227.97	489	6.60	
공격행동	성별	.04	1	.04	.01
	연령	.00	1	.00	.00
	성별×연령	4.00	1	4.00	.62
	오차	3152.06	489	6.45	
미성숙행동	성별	17.61	1	17.61	1.91
	연령	23.75	1	23.75	2.58
	성별×연령	4.09	1	4.09	.44
	오차	4504.25	489	9.21	
전체	성별	936.15	1	936.15	9.11**
	연령	88.88	1	88.88	.87
	성별×연령	.09	1	.09	.01
	오차	50239.65	489	102.74	

3.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간의 관계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행동문제를 종속 변수로 하고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지각을 독립변수로 한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는 행동문제에 대한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의 주효과를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는 스트레스와 행동문제간의 관계에서 중재변수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 지지의 스트레스 완화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지각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보면 〈표 8〉에 제시된 바와같이, 전

반적으로 행동문제는 아동의 스트레스와는 정적 관계가 있고 사회적 지지 지각과는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행동문제는 아동이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높아지고, 아동이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아동의 사회적 지지 지각은 행동문제에 대해 독립적인 주효과를 지닐 뿐 아니라, 일부 행동문제 유형에서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함으로써 행동문제의 유발을 억제하는 스트레스 완화효과를 보였다. 즉 친구지지는 위축행동과 공격행동에서, 교사지지는 불안행동과 공격행동에서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행동문제의 유발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행동문제에 대한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의 위계적 중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	과잉행동		불안행동		위축행동		공격행동		미성숙행동	
	(1)	(2)	(1)	(2)	(1)	(2)	(1)	(2)	(1)	(2)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스트레스(X ₁)	.65(.17)***	.35(.09)	.31(.07)	.24(.06)	.40(.12)**	.01(.01)	.46(.14)**	.34(.11)	.71(.19)***	.52(.14)*
친구지지(X ₂)	-.15(-.04)	-.44(-.11)	-.54(-.13)**	-.60(-.14)	-.84(-.26)***	-1.22(-.37)**	-.37(-.12)*	-1.15(-.36)**	-.77(-.20)***	-.95(-.25)***
X ₁ * X ₂	.14(.09)	.03(.02)				-.19(-.14)*		-.39(-.31)**		.09(.06)
상 수	12.72	13.33	13.57	13.70	11.72	12.53	10.53	12.20	12.90	13.35
Cum R ²	.082	.084	.077	.077	.132	.136	.094	.103	.147	.148
스트레스(X ₁)	.65(.17)***	.16(.10)	.12(.14)***	.11(.06)	.42(.13)**	.45(.14)	.39(.12)**	.23(.07)	.90(.24)***	1.25(.33)**
가족지지(X ₂)	-.13(-.03)	-.45(-.11)	-.10(-.01)	-.04(-.08)	-.70(-.21)***	-.67(-.20)*	-.54(-.17)***	-.69(-.21)*	-.12(-.03)	-.21(-.05)
X ₁ * X ₂	.32(.08)	.04(.08)				.02(.01)		.08(.06)		-.16(-.11)
상 수	12.66	13.37	11.39	12.40	11.42	11.35	11.02	11.37	11.21	10.48
Cum R ²	.082	.083	.069	.070	.129	.129	.107	.108	.111	.113
스트레스(X ₁)	.71(.18)***	1.35(.26)*	.39(.09)*	.73(.18)*	.50(.15)***	.63(.19)*	.48(.15)***	.99(.31)**	.87(.23)***	1.11(.29)**
교사지지(X ₂)	.05(.01)	.37(.10)	-.28(-.07)	.07(.02)	-.57(-.18)***	-.44(-.14)	-.33(-.11)*	.18(.06)	-.29(-.08)	-.04(-.01)
X ₁ * X ₂		-.14(-.10)		-.17(-.11)*		-.07(-.05)		-.26(-.21)*		-.12(-.08)
상 수	12.72	13.33	12.85	13.30	10.95	10.66	10.39	9.33	11.61	11.11
Cum R ²	.081	.083	.073	.076	.119	.121	.092	.097	.116	.118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b : 비표준화된 회귀계수, β : 표준화된 회귀계수

<표 9> 행동문제에 대한 관련변수들의 중회귀분석표

독립변수	과잉행동		불안행동		위축행동		공격행동		미성숙행동	
	b	(β)	b	(β)	b	(β)	b	(β)	b	(β)
배경변수										
부의 교육수준	-07	(-.06)	-01	(-.01)	.10	(.09)	.01	(.01)	.09	(.08)
모의 교육수준	.06	(.04)	.02	(.02)	.05	(.05)	.03	(.03)	-.01	(-.01)
부의 직업	-.43	(-.12)*	-.10	(-.10)	-.40	(-.13)*	-.38	(-.13)*	-.56	(-.16)**
모의 직업	.49	(.07)	-.03	(-.01)	-.05	(-.01)	.58	(.10)*	.03	(.01)
가계소득	-.01	(-.03)	.01	(.02)	-.01	(-.08)	-.01	(-.02)	-.01	(-.09)*
아동의 성별	-.47	(-.08)	-.10	(-.17)***	-.62	(-.12)**	-.06	(-.01)	-.29	(-.05)
아동의 연령	.65	(.11)*	-.14	(-.02)	-.50	(-.10)*	-.02	(-.01)	.15	(.02)
스트레스										
부모영역	.10	(.15)*	.01	(.01)	-.02	(-.04)	.08	(.15)*	.07	(.11)*
가정환경영역	-.03	(-.04)	.02	(.03)	.08	(.13)*	-.02	(-.04)	.03	(.05)
친구영역	-.06	(-.11)	.02	(.03)	.05	(.10)*	-.03	(-.06)	.01	(.01)
학업영역	-.02	(-.03)	.04	(.06)	.01	(.01)	-.04	(-.08)	-.02	(-.02)
교사학교영역	.16	(.23)**	-.05	(-.07)	-.01	(-.01)	.06	(.11)	.12	(.17)**
주변환경영역	-.06	(-.09)	.04	(.06)	-.04	(-.06)	.03	(.05)	-.06	(-.09)
사회적 지지 지각										
친구지지	-.01	(-.01)	-.05	(-.11)*	-.08	(-.22)***	-.02	(-.08)	-.08	(-.20)***
가족지지	.01	(.02)	.02	(.04)	-.03	(.10)*	-.04	(-.11)*	.03	(.07)
교사지지	-.01	(-.01)	-.03	(-.06)	-.02	(-.05)	-.01	(-.01)	-.01	(-.03)
회귀상수	13.37		14.46		14.29		11.84		13.77	
R ²	.19		.17		.30		.21		.26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b : 비표준화된 회귀계수, β : 표준화된 회귀계수

4. 행동문제에 대한 관련변수들의 상대적인 예언력

아동의 행동문제와 관련된 변수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파악된 변수들의 상대적인 예언력을 비교해 보기 위하여, 하위유형별 행동문제를 종속 변수로 삼고 각각의 변수에 대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9>를 보는 바와같이 행동문제의 하위유형에 따라 의미있는 관련변수들이 제각기 다르다.

먼저 과잉행동의 경우에는 교사학교영역의 스트레스와 부모영역의 스트레스, 부의 직업, 아동의 연령이 과잉행동을 의미있게 예언해 주었다. 불안행동에서는 친구지지 지각과 아동의 성별만이 의미있는 예언변수로 나타났다. 위축행동을 종속변수로 한 경우에는 친구지지 지각, 아동의 성별과 연령, 부의 직업, 가정환경영역의 스트레스와 친구영역의 스트레스, 가족지지 지각 등, 여러 변수가 위축행동을 의미있게 예언해 주었다. 공격 행동에서는 부모영역의 스트레스와 부의 직업, 가족지지와 모의 취업 등이 의미있는 예언변수로 나타났다. 끝으로 미성숙행동을 종속변수로 한 경우에는 친구지지 지각이 가장 예언력 높은 변수이며, 이 밖에 교사학교영역의 스트레스와 부의 직업, 부모영역의 스트레스 등이 의미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V. 결 론

이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대체로 아동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지각은 부모의 교육수준, 부의 직업, 가계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모의 취업유무에 따른 차이는 없다. 아동의 행동문제는 부의 교육수준과 직업, 가

계소득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모의 취업이나 교육수준 등의 어머니와 관련된 변수에 따라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다. 한편 부모의 교육수준과 직업, 가계소득 등이 아동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지각 및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각 변수의 하위영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스트레스나 사회적 지지, 행동문제 등의 변수들을 연구주제로 삼을 때에는 총체적인 단일개념으로 다루기보다는 하위영역으로 세분화하여 관련변수를 규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둘째, 친구영역과 주변환경영역에서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달라, 여아는 친구영역에서 남아는 주변환경영역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또한 10세아동은 12세아동보다 가정환경과 친구, 교사 및 학교, 주변환경 등의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지만, 학업영역과 부모영역에서는 10세아동과 12세아동간에 별 차이가 없다. 한편 아동의 행동문제는 여아가 남아보다 불안행동과 위축행동을 더 많이 보이고, 10세아동이 12세아동보다 과잉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 지각은 아동의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셋째,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아동에게서 행동문제가 더 많이 나타난다. 따라서 다양한 생활 국면에서 경험하는 아동의 스트레스는 행동문제를 예언해주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아동이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행동문제는 적어진다. 이는 사회관계망을 통해 얻게 되는 사랑과 수용, 안전감 등의 긍정적 경험과 지지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대처전략을 증진시켜 결국 아동의 적응행동과 안녕에 도움을 주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함으로써 행동문제의 유발을 억제하는 등, 행동문제에 미치는 스트레스

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적응 및 안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행동문제의 유발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스트레스의 해로운 영향을 완화시켜 행동문제의 유발을 억제하는 등의 간접적인 효과도 발휘함으로써 스트레스와 행동문제간에 유용한 중재변수로서의 기능도 한다고 볼 수 있다.

내재, 행동문제의 하위유형별로 관련변수들의 상대적인 예언력을 보면, 과잉행동에서는 교사학 교영역과 부모영역에서의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예언력이 높다. 불안행동에서는 친구지지 지각이, 위축행동에서는 친구지지 지각과 가정환경영역의 스트레스가 높은 예언력을 보인다. 공격행동에서는 부모영역의 스트레스와 부의 직업이, 미성숙행동에서는 친구지지 지각의 예언력이 높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친구지지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아동의 행동문제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친구지지의 영향력이 다른 변수들보다도 상대적으로 큰 것은 아동기의 발달특성상 학동기로 오면 가족의 영향력은 이전 상태로 유지되거나 혹은 감소되는 반면, 친구는 아동의 삶에 매우 의미있는 존재로 부각될 뿐 아니라 아동의 성장과 더불어 친구의 영향력이 더욱 증가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친구는 행동문제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있어서 가족이나 교사보다도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적응을 돕고 행동문제의 예방을 위해서는 친구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족은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가족지지를 제공함과 아울러 친구지지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주는 등의 간접적인 지원도 제공할 것이 요구된다.

한편 이상의 결론은 횡단적 자료를 사용하였다는 점과 다양한 발달단계를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유의표집을 하였다는 점 등에서 제한

점을 지닌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와같은 제한점들을 보완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것이 요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사회적 지지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와 자료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아동의 스트레스 및 행동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스트레스에 노출된 아동, 그리고 행동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그 가족을 돕기 위한 개입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참 고 문 헌

- 김명숙(1995).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성영혜(1993). 부모의 사회적 지지체계가 아동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미현(1993). 가정의 경제적 스트레스 및 부모의 지지에 따른 아동의 행동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182-194.
- 한미현·유안진(1995a). 한국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3(4), 49-64.
- 한미현·유안진(1995b). 아동행동 평가척도(CBCL)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6(2), 5-21.
- Achenbach, T. M.(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4-18, and 1991 profile*. Department of Psychiatry. University of Vermont.
- Cohen, S., & Hoberman, H.(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 Compas, B. E.(1987). Coping with stres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01(3), 393-403.
- DeLongis, A., Coyne, J. C., Dakof, G., Folkman, S., & Lazarus, R. S.(1982). Relationships of daily hassles, uplifts, and major life events to health status. *Health Psychology*, 1, 119-136.
- Dohrenwend, B S., Dohrenwend, B. P., Dodson, M., & Shrout, P. E.(1984). Symptoms, hassles, social supports, and life events: Problems of confounded measur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3, 222-230.
- DuBois, D. L., Felner, R. D., Brand, S., Adan, A. M., & Evans, E. G.(1992). A prospective study of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3, 542-557.
- Dubow, E. F., & Tisak, J.(1989). The relation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Child Development*, 60, 1412-1423.
- Dubow, E. F., & Ulman, D. G.(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 52-64.
- Holahan, C. K., Holahan, C. J., & Belk, S. S.(1984). Adjustment in aging: The role of life stress, hassles, and self-efficacy. *Health Psychology*, 3, 315-328.
- Kaplan, H. B., Robbins, C., & Martin, S. S. (1983). Antecedents of psychological distress in young adults: Self-rejection, deprivation of social support, and life ev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 93-115.
- Lazarus, R. S., & Folkman,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 Y.: Springer Publishing.
- Lempers, J. D., Clark-Lempers, D., & Simons, R. L.(1989). Economic hardship, parenting, and distres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0 (1), 25-39.
- Rowlison, R. T., & Felner, R. D.(1988). Major life events, hassles, and adaptation in adolescence: Confounding in the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life stress and adjustment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3), 432-444.
- Selye, H.(1956). *The stress of life*. N. Y.: McGraw-Hill.
- Tausing, M.(1982). Measuring life ev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3, 52-64.
- Zarski, J. J.(1984). Hassles and health:A replication. *Health Psychology*, 3, 243-251.